



연중 제14주일 2024년 7월 7일

입 당 송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
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 1 독 서 에제키엘 예언서 2,2-5

화 답 송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
라나이다.



1.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
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
을 우러러보나이다. ◎

2.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
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3.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록 멀리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
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
았나이다. ◎

제 2 독 서 코린토 2서 12,7ㄴ-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마르코 6,1-6

영성체 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
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헛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예수님)이 한 손에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쪽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는 오직 문 안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열릴 수 있는 문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 그림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향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참삶의 길, 참행복의 길,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아무리 전해준다 하더라도 또 예수님이 우리들과 아무리 함께 하시려

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은 허공을 떠도는 말이 될 것이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은 결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의 손잡이를 돌려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묵시 3,20)

최현욱 베네딕토 신부
구봉성당 주임



자
비
전
문



우리들은 편견과 시기심, 때로는 신앙의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최근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은 신비롭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릇된 저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마음이 피어 나기도 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 이성환 루치아노(정관성당·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사람을 찾습니다

요즘 들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어느 날은 두어 번씩 사람을 찾는 문자가 들어온다. '인근에서 배회 중인' 혹은 '사람을 찾습니다.'로 시작하여 나이, 키, 옷, 신발뿐만 아니라 신체 특징까지도 나열해 놓고 있다. 고령사회인 만큼 치매 어르신들이 많은가 생각했지만, 연령을 보면 그것도 아니다. 청년,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교 나이까지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길거리를 지날 때 혹시나 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기도 한다. 길을 잃어 집을 못 찾는 것인지 집을 나가버린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그 반면에 게임에 빠져서, 혹은 학교생활에 적응이 힘들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주식을 한다는 등 여러 이유로 방콕!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 안에 있으면서도 대부분 식구들과 대화를 기피하고 산다. 그들은 청년이 되고 중장년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더욱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걸고 산다. 집에 있으면 집을 잃어버린 것은 마찬가지다.

'왜 집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생각하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웠다. 딱히 갈 곳도 없으면서 집이 싫다면, 집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보기 싫다면, 때론 공포스럽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가까이 마주 보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싶지 않을 때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

하루는 글쓰기 강의실에 지적이고 세련된 욕심 대의 아주머니가 오셨다. 한 달쯤 지나서 글을 써오셨는데 의사가 되어 자랑스럽기 그지없었던 딸이 병원을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눈이 짓무르도록 몇 년을 지내다 겨우 밖으로 나왔다고 했다. 강의실 안은 '저런 저런'하는 한숨 섞인 소리들이 흘러나왔다.

그랬다. 때가 되면 우리는 등 떠밀지 않아도 모두가 집을 떠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떠나기 전까지 한 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욕심을 줄이고 모두가 행복하도록 죽을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집'이 있다. '하느님의 집'이다. 매주 미사를 드리며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그지없는 사랑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내가 가는 길을 잃었다가도 언제나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집. 강가에서 윤슬에 사로잡히거나 아름답고 매혹적인 것들에 사로잡혔다가도 '아침, 나에겐 더 아름다운 집이 있지' 하고 뛰어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있다. 수많은 잘못에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너그러움과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여 기댈 수 있는 따뜻함이 감싸고 있다. 오늘도 사람 찾는 문자가 들어왔다. 집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두 손을 모은다.

윤미순 데레사
남천성당 ·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3.7MHz	녹산(서부산) FM 101.5MHz	마산 FM 101.7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7.8(월)~7.13(토) 최현욱 신부(구봉성당 주임)
다정 다감 다섯시		아이컨텍				
						
<행복한 책임기> 출연: 박현주 (국제신문 박현주 북칼럼니스트가 소개하는 '한 권의 책'과 함께 하는 시간)		출연: cpbc부산가톨릭평화방송 어린이기자단 "어린이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출: 김다정 데레사				

제1회 청소년·청년문학상 심사평

청소년부에서는 나은영(엘리사벳)의 ‘불의 노래’를 최우수상으로 뽑았다. 긴 호흡의 산문에 시도 몇 편 실렸다. 가슴앓이하는 소녀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고, 주님께 맹세하는 내면 이야기가 구구절절 애달프다. 뛰어난 감성과 풍부한 어휘력으로 앞날이 기대된다. 그리고, 정영현(바오로)의 ‘속삭임’과 허승현(루카)의 ‘힘 내줘서 고마워, 친구야’를 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자는 아름다운 은유를 통한 신앙에 대한 믿음을, 후자는 아픈 친구에게 힘이 되고 기도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우정이 아름답다. 장려상은 이아림(마리스텔라)의 ‘사명’, 허승원(로사)의 ‘영원한 내 편, 할아버지’, 남수빈(스텔라)의 ‘하느님께서는 과연 후회하실까?’, 조현규(펠릭스)의 ‘오늘도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노주영(에스텔)의 ‘성당’을 선정하였다. 모두 귀여운 작품이다. 가족들을 하느님께 이끌어 보겠다는 ‘사명’, 돌아가신 신앙심 깊은 할아버지를 회상하며 쓴 소녀의 글, 인간들의 나쁜 짓을 보고 만드신 하느님은 후회하실까?, 가톨릭 신앙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야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당 나와 놓고 기도하고 일상이 된 꼬마 아가씨의 시까지 읽게 되어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졌다.

청년부 최우수상 박지예(가브리엘라)의 ‘치유의 계절’은 우선 감동적이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눈물겨운 서사였다. 더불어 담담한 문체도 돋보였다. 앞으로 좋은 글을 쓸 밑바탕이 확인되어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우수상 최태영(안테로)의 ‘성읍’은 자신의 편견을 성읍에 비유하여 참신양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경(레지나)의 ‘신앙을 찾아가는 여정’은 실패를 통한 도전으로 주님 손길 속에 용기를 얻는 이야기다. 진정한 마음과 반짝이는 재치가 돋보여 선정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장려상은 김혜진(마리넬라)의 ‘고통의 신비’, 허다연(라파엘라)의 ‘옛된 그림과 주님의 빛’, 김민철(요한 보스코)의 ‘선인장’으로 선정하였다. 신실한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나가는 모습들과 하느님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달콤한 가시를 만드셨는지도 모른다는 말에 모두 깊이 공감하였다.

올해 처음 실시된 공모전인지라 참여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여러 성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성의껏 응모해 주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 청년이 응모해서 기쁨이 넘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구옥순 베아타

망미성당 · 심사위원장

수상자 발표

제1회 청소년·청년문학상 공모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작품을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청소년부	이름	세례명	본당	부문
최우수	나은영	엘리사벳	남산	소설
우수	정영현	바오로	남천	시
	허승현	루카	구봉	수기
장려	이아림	마리스텔라	명지	산문
	허승원	로사	구봉	수기
	남수빈	스텔라	모라성요한	산문
	조현규	펠릭스	좌동	수기
	노주영	에스텔	모라성요한	동시

청년부	이름	세례명	본당	부문
최우수	박지예	가브리엘라	명지신도시	수기
우수	최태영	안테로	당감	시
	이해경	레지나	안락	수기
장려	김혜진	마리넬라	구포	수필
	허다연	라파엘라	동래	수기
	김민철	요한 보스코	주례	시

1 시상식 8월 24일(토) 가톨릭문학캠프 중

- 최우수, 우수 수상작은 계간 『부산가톨릭문학』에 수록됩니다.



지난 6월 22일(토), 해양사목(담당: 맹진학 신부, 회장: 이상일 유대철베드로) 주관으로 제31회 해양·수산인의 날 행사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해양·수

산업 종사자와 가족, 한국해양대학교 가톨릭 학생회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감사미사를 주례한 총대리 신호철 주교는 강론에서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명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강조했다. 해양사목은 해양·수산업 종사자와 해양 젊은이를 위해 미사,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영적, 물질 도움을 주고 있다.

거제동성당, 오룬대 순교자성지 건축기금 1억 원 봉헌



6월 30일(일)

주임: 김종남 신부, 회장: 서문수 다니엘

오룬대순교자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6월 23일~6월 29일] 합계: 15,621,000원, 누계: 2,819,690,332원

장유대청청년 100,000 주례하늘의문 100,000 르우나보체양상불 100,000 이광열 10,000,000 이서연 1,000,000 서종필정향례 500,000 김유빈 1,000
김정자 300,000 박정애 300,000 박태주 300,000 김순철 300,000 윤필선 200,000 허우연 200,000 만덕교우 100,000 최옥숙 10,000
김송희 100,000 류복재 100,000 이두순 100,000 변세연 100,000 장미자 20,000 지수미 30,000 배임순 20,000 김영화 30,000 김상하 50,000
손귀재 100,000 서주현 100,000 이금희 100,000 김영미 100,000 박상심 30,000 윤종태 50,000 유정화 20,000 서옥엽 10,000 박주남 50,000
김태현 100,000 하미애 100,000 강성인 100,000 김정선 100,000 허남순 50,000 최명섭 50,000 변덕임 50,000 최명선 50,000 이난우 50,000
김장성 100,000 김도경 100,000 차현지 100,000 강철중 50,000

농협 301-0629-8734-11, 부산 113-2014-1175-03 (예금주: 천주교부산교구)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요특전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례주년에서 하루에 해당하는 ‘전례일’은 자정에 시작하여 그 다음날 자정에 끝납니다. 그러나 주일과 대축일은 이미 그 전날 저녁에 시작합니다.(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규범 3항) 주일이 토요일 저녁에 시작되므로 ‘전례일로서의 토요일’은 자정에 시작하여 저녁이 되기 전에 끝납니다. 토요일 저녁은 전례일로 볼 때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속합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저녁미사를 ‘토요특전미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은 이미 주일이며, 주일에 주일미사를 거행하는 것을 굳이 ‘특전’(특별히 베푸는 은전)이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14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특전미사’라는 용어를 사

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연히, 이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교회법 제1248조 1항)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1항은 토요일 저녁에 거행하는 주일미사를 아무리 빨라도 오후 4시 이후야 거행할 수 있다고 보다 세밀하게 밝힙니다. 이보다 더 앞당기면 토요일 시간전례인 낮기도 9시경(대략 오후 3시)과 충돌하여 ‘교구의 기도하는 질서’에 어긋날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저녁에 어린이 미사를 거행한다면 오후 4시 이전으로 앞당겨 거행해서는 안 됩니다.

■ 전례위원회

I 교구 관내 군종사제 인사발령

성명	게시된 곳
	가시는 곳
장대현 (인천교구)	천마대성당(제3미사일방어여단)
	해성대성당(제5공중기동비행단)

*부임일자: 2024.07.06

교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 홍보 미사

· 7.10(수) 09:30 · 하단성당
문의: 629-8760(성소국)

제4차 가정성화미사

· 7.11(목) 19:30 · 남산성당
참석: 가정사목 관련 사제단, 각 본당 가정분과
위원장 및 위원 / 문의: 441-3501(가정사목국)

7월 혼인강좌

· 7.14(일) 15:00~18:50 · 부산가정성당
대상: ①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
② 교회혼인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
접수: 100% 온라인(catholic-marry.or.kr),
회당 선착순 50커플, 당일 접수 불가
문의: 441-3501(가정사목국)

2024년도 예비신학생 하계 피정 및 2026학년도 지원자 피정 안내

· 7.29(월)~31(수) · 감물생태학습관
참가비: 5만원 / 신청마감: 7.9(화)
대상: 예비신학생(중3~고2), 2025학년도 지
원자반, 2026학년도 지원자반 신청자
문의: 629-8760(성소국)

청소년사목국 청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35세 이하의 신자
신청마감: 7.11(목) / 신청방법: 이메일(청소년
사목국 홈페이지-대학청년부-공지사항 참조)
오디션: 7.13(토) 11:00 푸른나무 교육관(일정
조율 가능) / 문의: 629-8784

본당

중앙성당 세실리아성가대 반주자 구함

문의: 246-4284(사무실),
010-2970-2938(지휘자)

가야성당 7월 성령치유대피정

· 7.9(화) 매월 두번째 화요일 13:00~16:30
· 가야성당(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출구)
강사: 문봉한 신부(성모솔숲마을)
미사, 안수, 고해성사: 윤명기 신부
준비물: 개인컵 / 문의: 010-5511-6593

남천성당 사무직원 구함

자격: 전산(한글,엑셀) 가능
서류: 이력서, 본당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문의: 623-4528

기관·제 단체·위원회

오순절평화회의마을 7월 부산후원회미사

부산: 7.8(월) 11:00 남천성당 소성전
문의: 782-0765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 7.8(월) 14:00 ·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010-4541-3239(비아회)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7.8(월) 19:30 · 가톨릭센터 3층
주제: 동해 유전 개발의 진실(김태현 기자)
문의: 465-9508 / 미사와 강의

교정사목회 후원회미사

부산: 7.9(화) 10:00 서면성당
울산: 교정시설 방학으로 미사 없음
문의: 441-7729

울산체나콜로(다락방)기도회 월미사

· 7.10(수) 14:00 기도 15:00 미사
· 복산성당 소성전 / 주례: 이광우 신부
문의: (052)201-6505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양산: 7.8(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7.9(화) 10:00 야음성당
부산: 7.11(목) 10:30 우동성당
문의: 600-8800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7.16(화) 매월 세번째 화요일 · 가야성당
14:00 체나콜로 기도(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15:00 미사 및 안수(티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
지도: 김기영 신부 / 문의: 010-8879-2376

성령새신 봉사회(영성의집)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목주기도
· 7.8(월) 12:00~16:00
-수요 성시간 치유기도와 미사
· 7.10(수) 13:00~15:30
- 금요 밤미사: 7.12(금) 19:40~22:30
-심화과정 1단계 5차(상담봉사자)
· 7.13(토) 15:00~14(일) 16:30
-494차 교구성령목상회(청소년)
· 7.19(금) 16:00~21(일) 17:00
-495차 교구성령목상회(일반)
· 7.26(금) 18:30~28(일) 17:30
문의: (055)382-9465

성령새신 봉사회(울산 영성의집)

- 목요 밤 미사 7.11(목) 20:00~22:30
문의: (052)244-7014

도시빈민사목 후원미사

· 7.8(월) 10:30 · 문현성당 / 문의: 467-1045
후원계좌: 부산 101-2077-2523-00 / 농협
301-0298-1668-41(예금주: 천주교부산교구)

도시빈민사목 반송 빛둘레 나눔가게

운동화, 의류, 예쁜그릇, 물컵 등(택배 및 직배
가능) 방문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문의: 542-0242, 467-1045, 010-2886-6467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30>

· 7.12(금) 19:30 · 서면성당 센다
출연: 트리오 갓등
주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
에서 받을 상이 크다"(마태 5,12)
진행: 이재석 신부 / 문의: 809-0642

파티마의세계사도직 7월 파티마의 날

· 7.13(토) 13:30~15:00
문의: 646-3746, 010-6764-3746

김범우순교자성지 사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

· 7.13(토) 09:00 삼랑진역 출발 / 식사 주문 가능
문의: (055)356-7030(김범우순교자성지)

로사리오의집

-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 7.13(토)
매월 2주 토요일 / 고해성사, 미사, 기도, 강의
문의: 010-7155-3498

(주)씨 피 여행사

10/7 발칸 메주고리에 12일 KE
10/15 스페인,파티마,루르드 14일 LH
12/2 나가사키 순례 3일 KE
247-5858, 010-3837-6434

(덕천)길맥외과의원

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
원장: 박우일 요셉
331-8888, 8899
덕천역 9번출구 파riba게트 건물 6층

미 래 고 속 관 광

8월 국내성지순례 (안동교구 2곳)
우곡성지/홍유한 고택지 - 특강 포함
8/10(토), 17(토), 24(토) 7시 출발
우중환(리차드) 010-3720-0303

스마일정경우비노의학과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744-8181, 010-5616-8600

삼성내과MR영상의학과의

갑상선/당뇨센터, 위/대장 내시경
전문의 14명(여의사 5명)
박인호(루까), 서수홍(라파엘)
하단역 2번출구 208-5566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

9.11 알프스,중세수도원 10일(545만원)
11.18 스페인,포르투갈 12일(449만원)
25.1.6 과달루페 성모님발현지 10일
대표: 유재구 요한 (02)778-8565

제 주 성산골든뷰호텔

제주 성산일출봉·섭지코지 길목
본당 단체별 맞춤 순례·가족·개인
문의시 천주교 신자용 할인쿠폰 증정
대표 오일석(요한) 064-784-8885

미카엘여행사 성지순례

8/26 발칸·메주고리에 12일
(부산출발) 9/2 베트남 다낭 5일
(부산출발) 제주·한국성지167 모집중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성인 예비신자
문의 : 519-0490(화~금 13:30~16:30)

오순절평화의마을 조리원 구함

정규직 60세 이하 연봉 3200이상
문의 : (055)352-4241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7.8(월) 11:00 ·부곡동 수녀원
·7.9(화) 10:00 ·이기대성당
문의 : 010-9081-1743, 582-1774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7.13(토)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문의 : 010-9353-1773

삼위일체수녀회 가족회미사

·7.11(목) 14:30 ·수녀원
문의 : 463-7660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미사

·7.11(목) 14:00 / 문의 : 634-4820
·파티마의세계사도직 2층 경당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성소모임

대상 : 만 45세 이하 독신여성(예외 상담가능)
문의 : 010-3355-4997, 010-8669-6383

<1일 피정> 및 <2박3일 피정>

<1일피정>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7.27(토) 10:00~16:00 (5만원)
<2박3일피정> '관상'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8.2(금) 15:00~4(일) 13:00 (25만원)
·광안리 은혜의 집 / 동반 : 이영근 수사
접수 : 010-8193-2648
(양주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도원)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1984. 7. 13.
김유재(그레고리오)
신부님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 : 7.11(목)~14(일), 8.9(금)~12(월)
성경완독 : 7.26(금)~8.3(토), 8.23(금)~31(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역여행 열두 소예
언서 : 8.15(목)~17(토)
문의 : 010-3340-0201(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8.2(금) 14:00~4(일) 16:00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회비 : 10만원
대상 : 중학생이상 미혼남녀 / 문의 : 010-5490-5345, myungkkot@daum.net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권민자 수녀(예수마음선교수녀회)
2박3일 : 8.2(금)~4(일)
8박9일 : 8.5(월)~13(화)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신청 : (031)321-9054, 010-4154-0885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름성소캠프

일반부 : 8.6(화)~8(목) 경남 산청 성심원
중고등부 : 8.2(금)~4(일) 경남 산청 성심원
문의 : 010-6608-3217(성소담당 신부)
*선착순 모집

성모승천 전례피정

·8.13(화) 16:00~15(목) 13:00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 30만원(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 010-6791-0071

미리내천주성삼수도회 성소자모집

대상 :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 새로운 가족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95-3217(성소부)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추자도포함 : 9.11~14, 10.5~8, 10.27~30
자연순례 : 9.2~4, 9.7~9, 9.21~23, 9.26~28
우도섬포함 : 7.25~28, 8.1~4, 8.6~8, 8.10~13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 (064)796-4182, (02)773-1455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성지·역사·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생태순례 : 8.21~23, 9.1~3, 9.20~22, 9.28~30
10.28~30, 11.9~11, 11.14~16, 12.7~9, 12.13~15
우도포함 : 7.25~28, 8.2~5, 8.8~10, 8.14~17
추자도성지순례 : 9.7~10, 10.7~10, 11.3~6
문의 : (064)756-6009, (02)773-1463

2024 모여라 가톨릭 영상 공모전 안내

주제 : 신앙캠프 뭐하니?(주일학교 여름신앙
학교와 관련된 자유 영상) / 참가자격 : 본당·
단체·수도회 및 세례받은 신자 누구나
접수 : 8.1(목)~9.1(일), 방법 : 신청서 작성 &
https://mocatholic.or.kr에 영상등록
문의 : (031)8019-5403
(천주교 수원교구 모여라가톨릭팀)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동영상 강좌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공간과 순례(최화선 박사)
성경대학 :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2
(송봉모 신부) / 죽음수업(홍기령 교수) / 영성과
심리의 통합 두 번째 길(최지원 수녀) / 구약
성경 아카데미 : 구약성경의 기초(주원준 박사)
마르코의 예수이야기(박상훈 신부) / 삶의 의미
: 철학적 도발, 신학적 리액션(김민철 신부)
·9월 개강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김요셉 신부님

우리 본당 신자들과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어디 좋은 장소 없을까요?



박마리아 수녀님

신자들과 다과도 나누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페 공간이 어디 없을까요?



이미카엘라 주일학교 교사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부담없이 뽐낼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없을까요?



혹시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면,
바로 이곳이 당신이 바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가톨릭센터
부산 cpbc 공개홀 및 복합문화공간

축복식 : 9월 7일 토요일 17시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송월타월 부산진대리점

SINCE 1965
(부산진시장, 우리은행 옆)
632-5690, 010-4807-5690
양홍식(토마스) 유영애(루시아)

정대수맑은신경과

전)부산대학병원장 치매, 어지럼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두통, 고혈압
부산대학교 부총장 불면증, 뇌졸중
남천역 3번출구 612-6100

우리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 매매·교환·위탁·폐차·정비
조남철(네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및 신차의 모든 차량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보 나 투 어

8/16 페낭8말라카 순례 6일
9/23 이집트 성가정 피난 순례 13일
12/19 남인도 순례 13일
(02)732-4578 www.bonatour.co.kr

김병호정형외과

척추관절/통증재활/도수/물리치료
정형외과 전문의 원장 : 김병호 루카
752-0020 수영구 수영로581
광안역 4번출구(4/5층)

가톨릭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3일
루르드/파티마 성지 순례 포함
9/19 (599만원+2000유로)
catravel.co.kr 070-4086-0207

이삿집은 우리트랜스

돌아가신 분 유품도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변성만(요한) 권명숙(로사리아)
582-1414
010-4042-8662

독 일 보 청 기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 무료, 일반90%)
세계6대브랜드 보청기 모두 취급 판매
김무나(글라라) 교우특별할인
803-5588, 1871(빨간색간판)